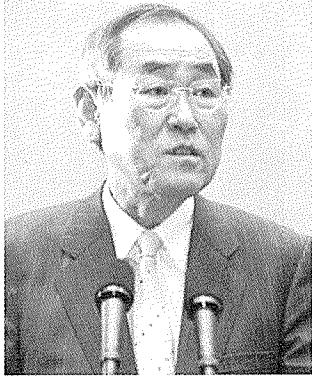


진흥회 소식

제 28회 정기총회 개최



본회 회장에 선임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본회는 지난 2월 11일(수) COEX 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제28회 정기총회 및 “전자업계 친환경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본회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고 LG전자 김쌍수 부회장·대우일렉트로닉스 김충훈 사장 등 7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윤종용 신임 본회 회장은 “IT시장의 확산과 디지털전자제품의 보급 확대로 새로운 전자산업의 부흥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진흥회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전자산업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브로드밴드 시대를 맞이해 전자산업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선임에서 전임원을 재선임하고 (주)이랜텍, (주)성진씨앤씨, 파츠닉(주), 이레전자산업(주) 대표이사 등을 이사에 선임하고 LG엔시스 대표이사를 감사에 선임했다.

한편 안건 심의에서 2003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과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다음은 신임 이사가사 프로필이다.

(주)이랜텍

- 대표자 : 이 세 용
-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7-17
- 자 본 금 : 5,300백만원
- 매 출 액 : 1,355억원(2002년도)
- 종업원수 : 604명
- 설립년도 : 1982. 2. 5
- 가입년도 : 2002. 10. 8
- 생산품목 : 휴대폰 배터리 팩

(주)성진씨앤씨

- 대표자 : 임 병 진
- 본 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SK트윈테크빌딩 B동 3층
- 자 본 금 : 2,752백만원
- 매 출 액 : 275억원(2002년도)
- 종업원수 : 156명
- 설립년도 : 1997. 10. 10
- 가입년도 : 2002. 1. 8
- 생산품목 : DVR

파츠닉(주)

- 대표자 : 박 주 영
- 본 사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43
- 자 본 금 : 46,397백만원
- 매 출 액 : 2,081억원(2002년도)
- 종업원수 : 738명
- 설립년도 : 1973. 10. 13
- 가입년도 : 1976. 4. 20
- 생산품목 : 콘덴서, 요크 등 종합전자부품

이레전자산업(주)

- 대표자 : 정 문 식
- 본 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51
- 자 본 금 : 3,925백만원
- 매 출 액 : 568억원(2002년도)
- 종업원수 : 290명
- 설립년도 : 1990. 1. 4
- 가입년도 : 1998. 4. 13
- 생산품목 : LCD-TV, PDP-TV 등

LG엔시스

- 대표자 : 박 계 현
- 본 사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 LG마포빌딩
- 자 본 금 : 9,842백만원
- 매 출 액 : 2,740억원(2002년도)
- 종업원수 : 551명
- 설립년도 : 2002. 1. 1
- 가입년도 : 2003. 9. 24
- 생산품목 : ATM, 컴퓨터서버 및 솔루션



본회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업계 친환경 생산선언' 대회에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친환경 생산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04.2.11, 환경선언 발표하는 윤종용 회장)

환경선언 제정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업계 친환경 생산선언' 대회에서 윤종용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이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친환경 생산선언 동판을 헌정하고 있다.



한 자리에 모인 전자업체 CEO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업계 친환경 생산선언' 대회에 참석한 전자업계 CEO들이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친환경 생산선언 동판을 헌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김충훈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장



친환경 제품생산 선언

국내 전자산업계가 친환경 제품생산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전자업체 대표 300여명은 11일 오후 12시 삼성동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에서 업계 최초로 전자산업 '친환경 제품생산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자원부와 전자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국내 전자산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제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경영의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이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미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업계 공동으로 친환경 경영의지를 대내 외에 표명한 만큼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산업진흥회 회장인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전자업계를 대표해 '친환경제품생산'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전자산업진흥회 회장인 삼성전자 윤종용부회장(가운데 왼쪽)이 전자업계를 대표해 선언문 동판을 이회범 산자부장관(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진흥회 소식

업계의 의지를 담은 선언문 동판을 산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업계가 전달한 '친환경제품생산' 선언문에는 전자업계가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지켜야 할 쾌적한 환경보호 등 3대 기본원칙과 친환경제품 개발체제 구축, 납, 수은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4대 실천목표가 제시돼 있다.

산자부장관 초청, 전자업계 간담회



전자업계간담회 사진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자업계 간담회'에 참석, 최근 전자산업 동향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자제품 수출의 60% 이상이 환경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산자부는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DB시스템구축 ▲환경친화적 공급망 구축사업 지원 ▲유해물질 분석법 표준화사업 등을 상반기부터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전자산업 우수상'에 백산OPC, 스테코 등 2개사 선정

본회(<http://www.eiak.org>)는 지난 2월11일 2004년 '전자산업 대상' 기업 부문에 백산OPC(대표 김상화)와 스테코(대표 박재욱) 등 2개사를 각각 선정, 수상했다.

이번에 '전자산업 우수상'을 수상한 백산OPC는 94년 전자부품 전문기업으로 창업한 이후 사무기기용 OPC 드럼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고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 대비 순이익이 27%을 넘었다.

스테코는 95년 반도체 부품업체로 창업한 이후 액정디스플레이 구동IC용 탭 패키지 전문 조립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초미세 38 μ m PAD 피치(PITCH)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2억달러에 가까운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수출, 기술, 기능, 근로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20명의 '우수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개인 수출우수상에는 코칩 대표이사 손진형 등 5명, 기술우수상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차장 김경학 등 5명, 기능우수상에 LG전자 기정 김황식 등 5명, 근로우수상에 대덕전자 대리 편무호 등 5명이 선정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업계 협력 증진 유공자 및 해당 기업의 말은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된 전자업체 임직원 36명에게는 전자진흥회 회장표창이 수여됐다.

'전자산업 대상' 제도는 지난 93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으며, 기업부문과 개인부문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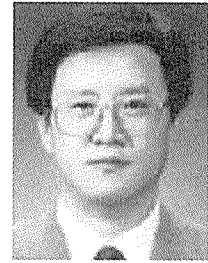
□ 기업부문 수상업체 (2개사)

(무순)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생상품	설립일	종업원 (명)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천불)	순이익 (백만원)
우수상	(주)백산OPC	김상화	OPC Drum	94.2	198	47,500	34,817	13,200
우수상	스테코(주)	박재욱	반도체 탐배키지	95.6	627	234,500	193,351	5,100



백산OPC 김 상 화 대표



스테코 박 재 욱 대표

□ 개인부문 수상자(14개사 20명)

(무순)

구 분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수출우수상	코칩(주)	대표이사	손진형
	대덕전자(주)	부장	김도영
	(주)메디슨	상무이사대우	권문택
	히로세코리아(주)	과장	김규명
기술우수상	필코전자(주)	차장	소익영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차장	김경학
	LG전자(주)	책임연구원	강태규
	(주)케이이씨	책임연구원	이종홍
	(주)삼보컴퓨터	책임연구원	이시영
기능우수상	(주)남성	계장	김순희
	LG전자(주)	기정	김황식
	(주)케이이씨	기감	최남수
	이미지퀘스트(주)	부장	고형석
	대덕GDS(주)	차장	정성원
근로우수상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그룹장	장대수
	대덕전자(주)	대리	편무호
	(주)이트로닉스	과장	권영한
	필코전자(주)	사원	허 건
	대아리드선(주)	사원	김동명
(주)남성	대리	천민호	

□ 회장 표창 수상자(17개사 36명)

(무순)

업체명	직위	성명	업체명	직위	성명
코칩(주)	이사	이문배	이미지퀘스트(주)	선임연구원	류명현
코칩(주)	차장	이팔규	이미지퀘스트(주)	대리	강신국
코칩(주)	대리	이용기	대덕GDS(주)	과장	김진태
스테코(주)	과장	오세혁	대덕GDS(주)	계장	한종훈
(주)삼보컴퓨터	대리	안재규	대덕GDS(주)	사원	최광순
(주)삼보컴퓨터	계장	전병옥	필코전자(주)	과장	강문헌
히로세코리아(주)	주임	박민성	(주)남성	과장	이승호
히로세코리아(주)	계장	정길환	LG전자(주)	부장	허명규
히로세코리아(주)	반장	조윤국	LG전자(주)	기장	정청교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과장	김은영	대아리드선(주)	사원	김광재
(주)대우일렉트로닉스	대리	김주태	대아리드선(주)	반장	송재웅
(주)케이이씨	책임연구원	윤한기	대아리드선(주)	사원	안유진
(주)케이이씨	부장	정재희	(주)이트로닉스	부장	정한규
(주)케이이씨	부장	손종태	(주)이트로닉스	노조위원장	하재범
(주)케이이씨	기감	오세훈	LG전자(주)	대리	김수연
대덕전자(주)	차장	고영주	삼성전자서비스(주)	주임	문은희
대덕전자(주)	과장	신원규	한국전기초지(주)	대리	전찬국
이미지퀘스트(주)	부장	송병근	삼성SDI(주)	대리	윤 원

전자산업진흥회, 유럽 폐전자제품 재활용 정보제공 사이트 오픈

본회(<http://www.eiak.or.kr>)는 2월 6일 유럽의 폐전자 제품 처리지침(WEEE)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28개국에 대한 나라별 리사이클링(재활용) 제도 및 센터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http://www.recycling.or.kr>)를 개설했다.

전자진흥회는 이번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 관련 입법과정과 법령자료를 신속하게 제공,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책자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사이트의 주요 내용은 ▲WEEE지침 내용 ▲회원국별 재활용 법령 ▲국가별 회수처리 시스템 ▲환경관련 유관 기관 ▲재활용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처리품목·비용·물량 등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은 2003년 2월 WEEE 지침을 발표하고 2005년 8월부터 모든 폐전자전기제품의 수거와 처리를 해당제품의 생산자가 부담토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 이외에 오는 2004년 5월부터 추가로 동구권 10개국이 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회원국은 총 25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을 세트업체, 전자부품 구매액 31조 6,033억원

본회(회장 윤종용, www.eiak.org)가 주요 세트업체의 2004년 전자부품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금년에는 내수 시장과 수출 양면에서 전자부품산업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이

진흥회 소식

트로닉스, 삼보컴퓨터, 휴맥스, 텔슨전자 등 주요 7개사의 금년도 전자기기 생산판매 계획과 전자부품 구매계획으로서, 수요업체와 공급업체간의 수급 안 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세트업체의 2004년 부품구매 계획을 보면 2003년 30조 870억원 보다 1조 5,163억원(5.0%) 증가한 31조 6,033억원 규모를 구매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의 전자부품 구매경향을 보면 내자구매가 62.4%인 19조 7,178억원이었으며, 외자구매는 37.6%인 11조 8,855억원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휴대폰이 11조 2,980억원으로 전체 품목 가운데 약 36%비중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노트북을 포함한 PC제품이 3조 8,667억원, C-TV(디지털 TV 포함)가 3조 7,149억원 등으로 정보통신용 제품의 부품 구매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그동안 주요 부품의 국산화 개발 노력으로 내자구매가 58.6%가 예상되어 실제 국산화율이라 할 수 있는 국산부품 채용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별 부품 구매계획을 보면 LG전자가 14조 8,971억원,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 13조 361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 1조 4,887억원, 삼보컴퓨터가 1조 3,099억원, 텔슨전자가 5,637억원, 휴맥스가 2,940억원을 구매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진흥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내 전자부품 관련 업체는 물론 정부 연구기관 등에도 제공하여 세트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정책자료로도 활용됨으로써,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 전자부품 구매계획〉

- 세트업체 주요 7개사의 2004년도 전자부품 구매금액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31조 6,033억원
- 주요 증가 추세 품목 : PDP패널 (73.4%), 휴대폰 (26.2%), 청소기(17.2%), 세탁기 (11.9%), 냉장고 (10.5%) 등
- 주요 감소 추세 품목 : 캠코더 (-42.7%), ROM드라이브 (-37.1%), 모니터 (-22.3%), WLL(-20.0%), 전자레인지 (-19.7%) 등
- 2004년도 내외자 조달 계획
 - 내자규모 : 19조 7,178억원 (비중 62.4%)
 - 외자규모 : 11조 8,855억원 (비중 37.6%)
- 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내자규모는 매우 높은 수준(90% 내외)

- 휴대폰, WLL, DVDP 등은 50% 대의 내자 조달
- ROM드라이브, PC, Set Top Box 등은 50% 미만
- 오디오, 에어컨의 경우 중국 등의 현지법인으로 부터 조달

아시아 전자전 상하이서 11월 개최

오는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주요 5개국의 첨단 IT제품이 총출동하는 종합전 성격의 아시아 전자전이 처음 열린다. 또 이들 5개 참가국은 내년부터 순번제로 종합전시회를 펼치며 나머지 참여국들은 이를 지원해 이들국가 간 전자제품관련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 본회(회장 윤종용 <http://www.eiak.org>)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중국전자제품공사(CEAC)·일본전자전협회(JESA)·대만전기전자제조자협회(TEEMA)·홍콩무역발전국(HKTDC) 등 5개국 전자전시회 주최자들이 최근 홍콩에서 '제1회 상하이아시아전자전(AEES)'을 매년 순번제로 공동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영훈 전자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상하이아시아전자전에는 아시아 각국의 유명 전자업체들이 대거 참가함에 따라 향후 아시아 지역이 세계 전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우리 전자업체의 중국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하이 상하이신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되는 상하이아시아전자전은 아시아 지역의 200여 주요 기업들이 참가해 △IT제품 △디지털 전자제품 △전자부품 등 최첨단 제품을 선보인다. 또 부대행사로 △각종 첨단 기술세미나 △아시아 전자산업 협력방안 공동포럼 △아시아 전자인의 밤 행사 및 각국의 전통 예술공연 등을 다양하게 펼치게 된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의 대표적 전자전시회인 제 64회 중국전자전(CEF)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8만여 명의 바이어 및 관계자들이 방문해 활발한 거래상담을 벌일 것으로 예정이다.

10월 한국전자전, 국내 최대 전자 종합 전시회 열린다

오는 10월 국내에서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가전쇼(CES)나 독일 하노버의 종합IT전시회인 세빗(CeBIT)쇼

를 지향하는 초대형 전시회가 탄생한다.

1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거래협회 등은 최근 국내 최대의 전자·정보통신관련 전시회인 '2004한국전자전'과 e비즈니스 전시회인 'e비즈 엑스포 2004'를 통합해 오는 10월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올초 윤중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입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전자전을 마이크로소프트·휴렛패커드 등 세계적인 IT업체가 참가하는 국제전시회로 발전시킬 예정이어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4개 행사 통합= 'e비즈 엑스포 2004'는 'e비즈 엑스포(한국전자거래협회의)', 'e비즈니스 대상(한국전자거래진흥원)', 'e러닝 엑스포(한국e러닝산업협회의)', 'ERP솔루션 페어(ERP협회의)' 등 산자부 내 전자상거래 관련 4개 행사를 통합해 대표적인 e비즈니스 행사로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 논의가 확정되면 한국전자전과 e비즈니스 관련 전시회 4개 등 총 5개 행사가 함께 열리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e비즈니스 전시회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시장 간의 구분을 없애서 공통된 전시 운영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진 이번 공동 개최는 △전통적 개념의 가전 △전자제품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소개되는 한국전자전과 IT분야의 새로운 산업분야인 e비즈니스를 결합하는 시도다.

전자·IT전시회와 e비즈니스전시회간 통합 전시회는 국내 전자·IT산업을 총 망라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 전자산업에서 e비즈니스까지 이르는 IT산업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메가급 통합전시회= 이번 통합 전시회에서는 단순한 첨단 제품전시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디자인에서 제조·유통·판매·AS에 이르기까지 IT 기반의 프로세스를 한 자리에서 보여주게 된다. 또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5회째를 맞는 한국전자전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전자산업 전시회. 지난해 행사는 총 15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바이어 5,000여 명을 포함해 총 19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세계적인 전시회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e비즈니스 관련한 대표적인 행사인 e비즈 엑스포는 올해로 여덟해 째를 맞이했다. 향후 진행될 세

부 논의에서는 전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은 e비즈 엑스포의 특성 유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글로벌 IT전자 종합전 지향= 최영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본부장은 "독일의 세빗(CeBIT), 미국의 컨슈머일렉트로닉쇼(CES) 등 글로벌전시회 수준의 종합 전자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전시가 결합될 필요가 있었다"며 "통합 개최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며 세부안에 대해 좀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전자거래협회 부회장은 "산자부 내 e비즈니스 관련 4개 행사를 통합한 이후 전자전과의 합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 "ATM 저가격 구조 개선 시급"

국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경쟁력 약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회장 윤중용 <http://www.eiak.org>)는 재정경제부 인증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한국경제정책연구소, 한국물가정보 등 3개 조사기관을 통해 국내 ATM 제조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ATM 평균 제조원가를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4개사 ATM의 평균 원가는 2,086만원(VAT 제외)였으며 이에 따른 적정 판매가격은 2,100~2,200만원 선으로 분석됐다.

진흥회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ATM은 2,000만원 미만에 공급되고 있어 대부분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하고도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는 구조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ATM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의 가격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모두 환류식 입출금모듈 등 동일한 부품을 탑재해 만든 제품임에도 한국에서 유통 가격이 낮은 것은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ATM의 환류식 입출금 모듈은 히타치, 오키, 오프론, 후지쯔 프론테크 등 일본업체로부터 전량 수입한 것으로 일본 은행들이 사용하는 ATM과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며 "한국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일본보다 현저히 낮아 현재 국내시장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